

밖에

한정 — ~밖에 (부정문과 함께)

‘오직, ~만’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지만, 반드시 부정 서술어와 함께 쓰이며 ‘모자람’의 느낌을 담습니다. 만은 중립적이지만, 이 표현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명사	밖에 — 형태 변화 없음	물밖에 없어요
서술어는 반드시 부정	없다, 안, 못	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
이/가를 대신함	함께 쓰지 않음	물밖에 — 물이밖에(×)
을/를을 대신함	함께 쓰지 않음	물밖에 — 물을밖에(×)
에, 에서 뒤	뒤에 겹쳐 붙음	집에서밖에 안 해요
중립적인 표현	만	물만 마셔요

■ 언제 쓰나요

밖에는 형태 변화 없이 어떤 명사이나 붙으며, 뒤에 오는 서술어는 반드시 부정이어야 합니다: 없다, 안, 못, -지 않다. 물밖에 없어요 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.

이중 부정 구조라는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. 한국어는 ‘물 밖에는 없다’라고 말해서 결국 ‘물만 있다’는 뜻이 됩니다. 의미상으로는 긍정인데 형태는 부정문인 셈입니다.

또한 이/가와 을/를을 대신하며 그 뒤에 겹쳐 붙지 않습니다. 같은 성질을 가진 조사: 만, 도.

만과의 진짜 차이는 말투입니다.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는 세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말이고, 세 시간만 잤어요는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말입니다.

■ 예문

- 1 냉장고에 물밖에 없어요.
- 2 어제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
- 3 지금 만 원밖에 없는데요.
- 4 저는 한국어를 조금밖에 못해요.
- 5 그 사람밖에 안 왔어요.
- 6 이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.

■ 비교

만

만은 중립적이며 긍정 서술어와 함께 쓰고, 밖에는 부족함을 함축하며 부정 서술어와 함께 씁니다. 둘 다 ‘오직, ~만’으로 풀이됩니다.

물만 있어요. (있는 것은 물이다) / 물밖에 없어요. (물 말고는 없다)

(이)나

같은 양에 대해 반대되는 반응입니다. (이)나는 양이 많다고 느끼는 것이고, 밖에는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입니다.

세 시간이나 잤어요. (무려 세 시간) /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 (겨우 세 시간)

뿐

뿐도 ‘오직, ~만’의 뜻으로 명사 뒤에 오지만, 부정 서술어가 아니라 이다와 함께 씁니다: 이것뿐이에요. 더 격식 있게 들립니다.

이것밖에 없어요. / 이것뿐이에요.

■ 주의

- ✗ 냉장고에 물밖에 있어요.
- 냉장고에 물밖에 없어요.
밖에는 부정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부정이 없으면 비문이 됩니다.
- ✗ 지금 만 원을밖에 없어요.
- 지금 만 원밖에 없어요.
밖에는 만, 도와 마찬가지로 이/가와 을/를 뒤에 붙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
- ✗ 세 시간밖에 잤어요.
-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
부정 표현은 없다, 안, 못 중 무엇이든 되지만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 뜻은 모자람의 느낌을 나타냅니다.